



한걸음 멈춰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를



더운 날씨에 온 국민이 시원함을 찾아 휴가를 떠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주안복지재단에서는 더운 날씨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휴식 같은 영화 한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더구나 이 영화는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1. 영화 줄거리

주인공 ‘마이클 오어’는 약물중독에 빠진 엄마와 어렸을 때 강제로 분리되어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자라났습니다. 남다른 운동신경과 건장한 체격으로 한 코치의 추천으로

상류 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지만, 성적 미달은 물론이고 지낼 곳조차 없어서 운동은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오어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리앤’이 학교 체육관과 공용 세탁실을 전전하며 얇은 옷 한 벌로 차가운 밤을 보내던 그를 집으로 초대해 하루를 묵게 해준 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인연이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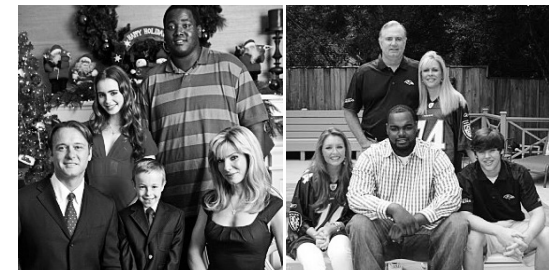
미국의 중산층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던 리앤의 가족은 갈 곳 없는 오어와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고, 옷을 사주고, 학교 미식축구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리앤의 마음에는 웬지 모를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흑인 고아인 오어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편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어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심성을 알게 된 리앤과 그 가족들은 점차 그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번도 자신의 침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오어에게 지낼 방을 내어주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고 싶다는 그를 위해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슬럼프에 살고 있는 오어의 친엄마를 찾아가 성을 알아내고, 비슷한 부류의 사모님들과의 모임에서 쏟아지는 조롱섞인 걱정에도 당차게 맞섭니다. 흑인인 오어와 딸이 한 집에 있는데 불안하지 않느냐는 그녀들의 걱정에도 ‘부끄러운 줄 알라’(Shame on you)고 말하고 일어섭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된 그들 앞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로 미식축구 선수가 되기에는 너무 낮은 오어의 성적과 남을 다치게 하지 못하는 착한 심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앤은 학교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오어의 ‘보호본능 지수’가 유일하게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던 것과, 얼마 전 자동차 사고에서 터지는 에어백을 막아 동생을 지켜냈던 것을 기억해 냅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다치지 않게 보호하라고 가르치자 오어는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촉망받는 미식축구 유망주로 많은 대학에서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적이 낮아 대학 입학이 위태로운 오어를 위해 리앤은 가정교사까지 들여가며 그를 미시시피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미시시피 대학은 리앤과 그 남편, 가정교사가 나온 대학이었기에 ‘그를 미시시피 대학에 입단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오어를 가족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릅니다. 혼란에 빠진 오어는 집을 나가고 리앤은 그를 찾아 슬럼프까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오어가 혼자 거리를 전전하며 지낼 때 자주 가던 세탁소 앞에서 만난 둘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미식축구를 하고 싶기는 했는지를 묻고, 정말 스스로 원해서 미시시피 대학에 간 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학을 선택하더라도 오어를 응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오어는 스스로 미시시피 대학을 선택하게 되고 훗날 프로구단에 입단해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영화상의 오어 가족(왼쪽)과 실제 오어 가족(오른쪽)

2. 블라인드 사이드

‘블라인드 사이드(Blind Side)’란 미식축구에서 쿼터백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처럼 우리 사회에도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억압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마이클 오어’가 우리 가까운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이 영화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 이용자 혹은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은 어려운 사람이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수동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실제로도 그들에게 많이 속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끄러운 줄 알라’는 리앤의 말이 뜨끔하며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오어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의 강점을 기억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던 리앤의 모습, ‘내가 그 아이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던 모습, 오해와 편견을 던고 일어나 진정으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사회복지사로써 무엇보다 필요한 면모가 아닐까요? 무엇보다 기독교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에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진정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